2022.10.4

KiRi 리포트
포커스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빈도 분석

전용식 선임연구위원, 강윤지 연구원

요 약

○ 본고는 언론기사에 나타난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주요 연관단어를 분석하여,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정성적 특성과 특성의 시기적 변화를 2016년 전후로 검토함

- 과잉진료, 한방진료가 주제인 기사 건수는 증가 추세인데,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에 의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언론보도 빈도가 높아지는 경우, 이 주제의 사회적 중요성에 영향을 미침
- 과잉진료와 더불어 한방진료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관련성이 높아졌기 때문임
  - 2021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 경미상해 진료비의 73% 이상이 한방진료임
- 연관단어는 기사의 주제와 관련도가 높은 단어들인데, 연관단어 분석을 통해 기사에 나타난 과잉·한방진료 관련 동향과 특성을 추론할 수 있음

○ 과잉진료의 연관단어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의 불필요한 입원(나이롱환자)과의 연관성은 줄어든 반면 한방진료·비급여와의 연관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과잉진료 연관단어 분석 결과, 2015년까지는 자동차보험의 빈도가 높았으나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의 빈도가 줄어든 반면, 실손보험, 비급여, 한방, 보험사기 등의 빈도는 높아짐

○ 한방진료의 연관단어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자동차보험, 교통사고와 관련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연관단어 가운데 자동차보험은 2015년까지 상위 100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3위(2.58%)를 기록하였고 교통사고 역시 2016년 이후 주요 연관단어로 등장함
- 2015년까지는 아토피, 디스크, 비염, 허리, 탈모, 체질 개선 등이 한방진료의 주요 연관단어였지만 이후에는 한약, 첩약, 약침의 빈도가 높아졌고 보험사기가 연관단어로 등장함
- 지난 10년간 특정 대형 한방병원 이름이 높은 순위의 연관단어로 나타나 한방진료에 대한 마케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비중이 늘면서 과잉진료의 연관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1. 검토배경

○ 과잉진료, 한방진료가 주제인 언론기사 건수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세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데, 의제설정이론(Agenda Setting Theory)에 의하면 특정 이슈에 대한 언론보도 증가는 사회적 관심도와 중요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표 1〉 참조)

- 과잉진료가 주제인 언론기사 건수는 2010년 406건에서 2021년 748건으로 증가하였고, 한방진료가 주제인 언론기사 건수는 2013년 670건에서 2020년 1,062건으로 증가함
-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기사 건수는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세 확대,[1] 실손보험 과잉진료 관련 기사 건수는 백내장 수술이 늘어나면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됨
  - 자동차보험 상해 급수 9급, 11~14급 경상환자의 대인배상 치료비는 2010년 0.35조 원에서 2013년 0.32조 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14년 0.53조 원에서 2021년 1.29조 원으로 증가함
  - 백내장 수술 건수는 인구 10만 명 가운데 788건에서 1,329건으로 연평균 3.7% 증가함
-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 가운데 한방진료 비중이 높아 한방진료는 과잉진료와 연관성이 높음
  - 2021년 기준 상해 급수 9급, 11급~14급의 진료비 1.29조 원 가운데 73.4%가 한방 진료비이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연평균 34.4% 증가함
- 의제설정이론과 관련해서 McCombs et. al(1972)은 "언론이 대중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수 있지만 특정 이슈를 강조해서 보도함으로써 대중이 그 이슈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되는데 효과적"이라고 주장함[2]

〈표 1〉 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주제의 언론기사 건수와 관련 지표 추이

(단위: 건, 조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과잉진료 보도	406	493	531	383	489	628	751	573	491	729	684	748
한방진료 보도	804	857	670	629	769	812	780	693	571	588	1,062	465
대인배상 치료비	0.35	0.33	0.35	0.32	0.53	0.67	0.74	0.78	0.94	1.11	1.21	1.29
한방진료 비중	11.3	15.0	18.9	25.4	29.9	36.6	43.4	49.0	55.3	62.8	68.6	73.4
백내장 수술 건수	788	841	823	848	893	945	992	1,048	1,127	1,305	1,329	-

주: 1) 과잉진료 보도와 한방진료 보도는 보도 건수, 대인배상 진료비와 한방진료 비중은 자동차보험 9급, 11급 이하 경상환자 대상 진료비와 한방진료 비중임
2) 백내장 수술은 인구 10만 명당 수술 건수임
자료: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뉴스데이터; 보험개발원; 건강보험공단

1) 전용식(2022), 「자동차보험 경상혼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 『이슈보고서』, 보험연구원
2) McCombs, M. E. and Shaw, D. L.(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mass media",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Summer

○ 본고는 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주제의 언론기사에 나타난 연관단어의 빈도를 두 기간으로 구분하고 분석하여 과잉진료, 한방진료 특성의 시기적 변화를 검토함

-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언론 뉴스기사를 분석하였는데, 201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일원화, 2014년 상해급수 조정, 2015년 4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비율 상향 등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2010~2015년, 2016~2021년까지의 두 기간으로 구분함
  - 전국일간지, 경제일간지, 방송사 뉴스로 한정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카테고리의 기사를 분석함(기사 건수는 〈표 1〉 참조)
- 연관단어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들인데, 빈도가 높을수록 주제(키워드)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연관성이 높을수록 주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도가 높음
  - '빅카인즈' 에서 제공하는 필터를 활용해 유사도가 높은 중복 기사, 인사, 부고, 동정, 포토 등의 내용 기사는 분석에서 제외함
  - 언론기사 제목에 '과잉진료'가 포함된 기사, '한방진료'가 포함된 기사를 각각 추출하고 각 기사 제목(혹은 연관단어)과 같이 사용된 연관단어를 분석함
  - 연관단어 빈도는 전체 연관단어 숫자에 대한 상대빈도(백분율)로 표시하였고, 상위 100위에 포함된 연관단어를 중심으로 검토함
  - '정도', '결국', '기간', '실제', '여부', '분야' 등 별도의 의미가 없는 단어들을 제외하고,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 등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도덕적 해이'로 통합함

2. 과잉진료 연관단어 빈도 분석

○ 과잉진료의 주요 연관단어 가운데 자동차보험의 빈도는 2016년부터 낮아진 반면 실손보험, 비급여, 한방의 빈도는 높아짐(〈표 2〉 참조)

- 과잉진료가 주제인 기사 건수가 늘어나면서 연관단어도 증가하였는데, 2015년까지는 73,847개였으나 2016년 이후에는 124,132개로 증가함
- 2015년까지 과잉진료 연관단어 중 실손보험의 빈도는 1.71%, 자동차보험의 빈도는 1.67%를 기록했으나 2016년부터 2021년에는 실손보험이 7.91%로 크게 높아진 반면, 자동차보험은 1.51%로 소폭 낮아짐
- 2016년부터 비급여(2.16%→3.22%)와 한방(1.22%→1.80%)의 빈도 역시 크게 높아짐

○ 보험사기(1.09%→1.16%), 불법(0.60%→0.63%) 등의 연관단어 빈도가 높아졌고 도덕적 해이도 2016년 이후 0.48%로 높아져 보험사기, 불법, 도덕적 해이 등이 과잉진료의 특성으로 나타남

〈표 2〉 과잉진료 언론기사 관련 연관단어 순위와 빈도 비교 1

(단위: 순위, %)

구분		비급여	실손 보험	자동차보험	한방	보험사기	불법	도덕적 해이
2010 ~2015	순위	7	13	14	26	29	61	-
	빈도	2.16	1.71	1.67	1.22	1.09	0.60	-
2016 ~2021	순위	6	1	19	15	25	46	82
	빈도	3.22	7.91	1.51	1.80	1.16	0.63	0.48

주: 상단의 숫자는 연관단어 가운데 순위를, 하단의 숫자는 빈도임. '-' 표시는 순위에 없고 빈도가 없다는 의미임
자료: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뉴스데이터

○ 특히 의료서비스, 상해 및 질병의 유형, 비급여 관련 언론보도 빈도가 높아져 과잉진료의 특성이 2016년 이후 변화한 것으로 보임(〈표 3〉 참조)

- 2016년 이전에는 입원, 갑상선암, 임플란트 등의 연관단어 빈도가 높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비급여인 MRI, 추나요법, 도수치료 등의 빈도가 높아짐
  - 질병과 상해의 유형은 2016년 이전에는 갑상선암, 임플란트의 빈도가 1.64%, 0.77%였지만 2016년 이후에는 도수치료(1.40%), MRI(0.89%), 백내장(0.85%), 경상(0.58%) 등의 연관단어 빈도가 높아짐
  - 이러한 현상은 불필요한 고가의 검사 및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과잉진료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줌
- 과잉진료 연관단어인 경상의 경우 자동차보험과 관련도가 높은데, 2016년 이전에는 연관단어 상위 100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53위로 0.58%를 기록함
  - 2015년까지 입원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의 특성이었으나 이후에는 경상이 두드러짐

〈표 3〉 과잉진료 언론기사 관련 연관단어 순위와 빈도 비교 2

(단위: 순위, %)

구분		입원	백내장	갑상선암	경상	MRI	임플란트	추나요법	도수치료
2010 ~2015	순위	9	-	15	-	-	42	-	-
	빈도	1.88	-	1.64	-	-	0.77	-	-
2016 ~2021	순위	26	35	41	53	33	39	77	23
	빈도	1.15	0.85	0.70	0.58	0.89	0.75	0.49	1.40

주: 상단은 연관단어 순위를, 하단의 숫자는 빈도임. '-' 표시는 순위에 없고 빈도가 없다는 의미임
자료: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뉴스데이터

3. 한방진료 연관단어 빈도 분석

○ 한방진료의 연관단어로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비급여 등이 2016년 이후 등장함(〈표 4〉 참조)

-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수는 2016년 이전까지 52,999개에서 2016년 이후 88,409개로 1.7배 증가함
- 자동차보험은 2016년 이전에는 없었지만 2016년 이후에는 빈도가 2.58%로 높아졌고, 순위도 3위를 기록하여 한방진료와 연관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비급여도 2016년 이전에는 연관단어 상위 100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이후에는 6위(2.33%)를 기록하여 비급여가 한방진료의 특성인 것으로 언론기사에 나타남
  - 첩약(1.55%), 약침(0.62%) 등도 상위 100위에 2016년 이후 등장하였고 한약은 2016년 이전 2.12%에 비해 빈도가 1.80%로 감소함

〈표 4〉 한방진료 언론기사 관련 연관단어 순위와 빈도 비교

(단위: 순위, %)

구분		자동차보험	비급여	추나요법	한약	첩약	교통사고	보험사기	과잉진료	경상	약침
2016~2021	순위	3	6	7	15	22	27	42	60	71	84
	빈도	2.58	2.33	2.25	1.80	1.55	1.26	0.99	0.74	0.68	0.62

주: 상단의 숫자는 상위 100위 연관단어 가운데 순위를, 하단의 숫자는 빈도임
자료: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뉴스데이터

○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가운데 교통사고, 과잉진료의 빈도 상승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비중 확대, 1인당 진료비 증가율 상승과 유사한 결과임

-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상해 급수 9급, 11급 이하 기준)은 2015년 36.6%에서 2021년 73.4%로 높아짐(〈표 1〉 참조)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보험 주요 상해에서 건강보험 의과와 한방, 그리고 자동차보험 의과와 한방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척추 염좌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도 한방진료 진료비 증가율이 의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 5〉 참조)
  - 자동차보험에서 진료비 비중이 25% 내외인 척추 염좌와 최근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뇌진탕(상해 급수 11급 1항)을 비교한 결과임
  - 척추 염좌의 경우 건강보험 한방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은 7.3%로 자동차보험 한방 1인당 진료비 증가율 6.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자동차보험 한방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9.3%로 건강보험보다 높게 나타남

• 뇌진탕에서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한방 1인당 증가율은 자동차보험에서 6.8%, 건강보험에서 5.38%로 나타남

-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한방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의 차이는 3.85%p로 자동차보험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남

〈표 5〉 2010년 이후 자동차보험 주요 상병의 1인당 진료비 증가율

(단위: %)

구분	뇌진탕(11급)				척추 염좌(12급)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의과	한의	의과	한의	의과	한의	의과	한의
2010~2013	-2.72	8.19	2.77	8.08	-2.53	6.80	-0.13	3.74
2017~2020	3.83	5.38	-1.04	6.80	8.84	8.93	3.56	9.30
2010~2020	1.50	6.43	3.34	10.28	3.30	7.33	2.56	6.81

주: 2014년 상해 급항 조정, 2016년 상해 급수 보험금 한도 조정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4년부터 2016년을 제외함
자료: 보험개발원

○ 주요 연관단어 가운데 질병, 환자 관련 단어들은 2015년 이전에는 아토피, 디스크, 비염, 여성, 노인 등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교통사고의 빈도가 높아짐(〈부록〉 참조)

• 피부(9위, 1.82%), 디스크(20위, 1.29%), 임신(26위, 1.16%), 아토피(30위, 1.09%), 비염(34위, 1.07%), 체질(70위, 0.80%) 등이 상위 100위에 있었으나 2016년 이후에는 상위 100위에서 사라짐

• 척추(4.0%→1.8%), 통증(2.86%→1.66%), 관절(1.27%→0.90%), 여성(2.47%→0.97%), 노인(1.31%→0.62%)의 빈도는 낮아졌고, 교통사고의 빈도는 상위 100위에 없었으나 2016년 이후 27위 1.28%를 기록함

○ 연관단어 가운데 대형 한방병원의 상호가 13위(2015년까지)와 28위(2015년부터)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한방병원의 마케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부록〉 참조)

4. 결론

○ 과잉진료 주제의 언론기사 건수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치료비와 한방진료비 비중, 백내장 수술 건수 증가세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의제설정이론과 연관단어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과잉진료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이 높아졌고 과잉진료의 특성이 변화한 것으로 보임

• 과잉진료의 연관단어 분석 결과 2016년 이전에는 자동차보험 빈도가 높았으나 이후에는 실손보험, 비급여, 한방의

빈도가 높아짐

- 보험사기, 불법, 도덕적 해이 등의 빈도가 높아져 사회적 중요성이 확대된 것으로 보임

○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분석 결과 2016년 이후 자동차보험, 교통사고, 경상 등의 빈도가 높아져 한방진료의 특성이 변화한 것으로 나타남

- 한방진료의 다빈도 연관단어가 2015년까지는 여성, 체질, 아토피, 노인, 척추, 관절, 통증 등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이들의 빈도가 줄어들고 상위 100대 연관단어에 교통사고(1.26%)가 등장함
- 추나요법(2.25%), 비급여 진료인 첩약(1.55%), 약침(0.62%) 등이 2016년부터 연관단어 상위 100위에 등장함

○ 과잉진료와 한방진료의 연관단어 가운데 보험사기의 빈도가 2016년부터 높아져 부정적 평가가 확대된 것으로 보임

- 과잉진료의 연관단어로 보험사기의 빈도는 2015년까지 1.09%에서 2016년부터는 1.16%로 높아짐
- 한방진료의 연관단어로 보험사기 빈도는 2015년까지는 보험사기가 상위 100개 연관단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6년부터는 42위, 0.90%로 높아짐

○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비중이 늘면서 과잉진료의 연관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부록] 과잉진료와 한방진료 연관단어 상위 100개

구분	과잉진료				한방진료			
연도	2010~2015년		2016~2021년		2010~2015년		2016~2021년	
순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건강보험	4.54%	실손보험	7.91%	척추	4.00%	건강보험	4.91%
2	수술	4.31%	건강보험	4.62%	수술	2.98%	진료비	2.74%
3	진료비	3.25%	보험금	3.47%	통증	2.86%	자동차보험	2.58%
4	부담	2.70%	보장	3.39%	여성	2.47%	코로나19	2.55%
5	의료비	2.32%	수술	3.38%	건강보험	2.39%	보건복지부	2.45%
6	증가	2.28%	비급여	3.22%	보건복지부	2.28%	비급여	2.33%
7	비급여	2.16%	진료비	2.81%	진료비	2.26%	추나요법	2.25%
8	검사	2.07%	손해율	2.61%	한약	2.12%	입원	2.10%
9	입원	1.88%	부담	2.41%	피부	1.82%	의대	1.99%
10	질환	1.86%	인상	2.40%	한방병원	1.81%	한방병원	1.97%
11	보장	1.80%	증가	2.22%	치료법	1.75%	척추	1.88%
12	수가	1.74%	청구	2.20%	보험	1.67%	수술	1.97%
13	실손보험	1.71%	지급	2.04%	자생한방병원	1.63%	부담	1.88%
14	자동차보험	1.67%	의료기관	1.98%	성장	1.44%	보험	1.84%
15	갑상선암	1.64%	한방	1.80%	의료서비스	1.40%	한약	1.80%
16	포괄수가제	1.63%	검사	1.79%	운동	1.36%	보험료	1.72%
17	인상	1.60%	의료비	1.56%	노인	1.31%	손해율	1.69%
18	의원	1.58%	의원	1.55%	질병	1.31%	의협	1.66%
19	치과	1.55%	자동차보험	1.51%	스트레스	1.30%	통증	1.66%
20	메르스	1.38%	질환	1.45%	디스크	1.29%	보험금	1.65%
21	검진	1.37%	보건복지부	1.42%	관절	1.27%	파업	1.64%
22	지급	1.37%	치과	1.40%	치과	1.26%	첩약	1.55%
23	사고	1.32%	도수치료	1.40%	상담	1.24%	확진자	1.54%
24	청구	1.26%	사고	1.24%	부담	1.21%	감염	1.42%
25	보건복지부	1.24%	보험사기	1.16%	봉사	1.18%	보험사	1.37%
26	한방	1.22%	입원	1.15%	임신	1.16%	전공의	1.36%
27	손해율	1.20%	코로나19	1.14%	개원	1.13%	교통사고	1.26%
28	질병	1.17%	사무장병원	1.12%	협진	1.09%	자생한방병원	1.25%
29	보험사기	1.09%	본인	1.09%	생활	1.09%	수가	1.23%
30	부담금	1.08%	증상	1.04%	아토피	1.09%	지급	1.09%
31	의료서비스	1.06%	실손보험료	0.97%	신경	1.09%	사고	1.06%
32	증상	1.04%	질병	0.89%	입원	1.09%	공공	1.05%
33	심평원	1.01%	MRI	0.89%	기기	1.07%	대구	1.01%
34	복지	0.95%	적자	0.87%	비염	1.07%	대학	1.00%
35	시술	0.87%	백내장	0.85%	양방	1.06%	여성	0.97%
36	적자	0.85%	문재인케어	0.84%	보건소	1.05%	실손보험	0.95%
37	예방	0.82%	감염	0.82%	본인	1.04%	확진	0.95%
38	OECD	0.81%	치료비	0.77%	내과	1.03%	양방	0.94%
39	자동차	0.81%	임플란트	0.75%	전문의	1.02%	협진	0.93%
40	본인	0.79%	감소	0.70%	외국인	1.02%	본인	0.91%
41	여성	0.77%	갑상선암	0.70%	근육	1.01%	관절	0.90%
42	임플란트	0.77%	여성	0.68%	허리	1.01%	보험사기	0.90%
43	통증	0.74%	동물	0.68%	메르스	0.99%	청구	0.88%
44	대표	0.71%	치아	0.66%	급여비	0.99%	집단	0.85%
45	치아	0.71%	심평원	0.65%	노력	0.98%	한의약	0.84%
46	교통사고	0.70%	불법	0.63%	보건	0.95%	의료서비스	0.84%
47	수익	0.70%	반려동물	0.62%	해외	0.95%	치료법	0.83%

[부록] 계속

구분	과잉진료				한방진료			
연도	2010~2015년		2016~2021년		2010~2015년		2016~2021년	
순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48	포괄	0.68%	의료법	0.62%	자신	0.95%	치과	0.82%
49	투자	0.67%	적발	0.62%	구성	0.93%	노력	0.81%
50	사무장병원	0.66%	경찰	0.62%	통합	0.92%	치매	0.79%
51	치료비	0.65%	수가	0.62%	각종	0.92%	심평원	0.78%
52	갑상선	0.64%	피해	0.60%	장애	0.92%	휴진	0.78%
53	세계	0.64%	경상	0.58%	대학	0.91%	치료비	0.77%
54	설립	0.63%	상승	0.58%	임상	0.91%	해외	0.76%
55	영리	0.61%	대통령	0.58%	사람들	0.90%	보건	0.76%
56	거부	0.61%	금융당국	0.58%	의료비	0.90%	안전	0.76%
57	불필요	0.61%	허위	0.58%	면역력	0.89%	철회	0.75%
58	의협	0.61%	갑상선	0.57%	관광	0.89%	의료비	0.75%
59	척추	0.60%	시술	0.57%	환경	0.88%	1만	0.74%
60	감소	0.60%	사망	0.57%	회복	0.86%	과잉진료	0.74%
61	불법	0.60%	의료서비스	0.57%	보험료	0.85%	통합	0.73%
62	노인	0.60%	생명	0.56%	탈모	0.85%	시범	0.73%
63	규모	0.60%	병상	0.56%	클리닉	0.85%	대한의사협회	0.73%
64	교육	0.58%	의대	0.55%	복용	0.84%	질병	0.72%
65	민간	0.58%	개정안	0.55%	부위	0.82%	외국인	0.72%
66	일본	0.58%	인하	0.55%	관심	0.82%	병상	0.71%
67	의학	0.58%	보험업	0.55%	세계	0.82%	기기	0.70%
68	대형	0.57%	검진	0.54%	음식	0.81%	보건소	0.69%
69	허용	0.57%	통증	0.52%	부작용	0.80%	단체	0.69%
70	대학	0.57%	실손보험금	0.52%	체질	0.80%	국회	0.69%
71	소득	0.57%	민간	0.52%	아이들	0.79%	경상	0.68%
72	개혁	0.57%	부작용	0.52%	변화	0.79%	세계	0.67%
73	종합	0.56%	개정	0.51%	가족	0.78%	신경	0.67%
74	제시	0.56%	기본형	0.51%	발전	0.78%	요양	0.67%
75	악화	0.56%	악화	0.50%	자료	0.77%	중국	0.67%
76	비중	0.55%	조정	0.49%	가슴	0.76%	인력	0.66%
77	경영	0.54%	추나요법	0.49%	남성	0.76%	구성	0.66%
78	운동	0.54%	과다	0.49%	요법	0.75%	중단	0.65%
79	의료법	0.54%	변화	0.49%	제거	0.75%	하루	0.65%
80	규제	0.54%	보상	0.49%	감기	0.74%	운동	0.65%
81	현행	0.54%	규제	0.49%	선정	0.74%	임상	0.64%
82	부작용	0.54%	도덕적 해이	0.48%	한약재	0.73%	이사장	0.63%
83	개정	0.53%	의학	0.48%	가지	0.73%	근육	0.63%
84	방침	0.53%	표준화	0.48%	중국	0.73%	약침	0.62%
85	피해	0.53%	과도	0.47%	자궁	0.73%	노인	0.62%
86	적정	0.52%	인력	0.47%	손상	0.72%	한방진료비	0.62%
87	사망	0.52%	영상	0.47%	출산	0.72%	전공	0.62%
88	경찰	0.52%	의심	0.46%	요양	0.71%	상담	0.61%
89	현실	0.52%	요양	0.46%	역할	0.70%	위원회	0.60%
90	병상	0.51%	OECD	0.46%	재활	0.70%	발전	0.60%
91	장애	0.51%	수사	0.45%	알레르기	0.69%	외래	0.58%
92	과다	0.51%	사건	0.45%	주민	0.69%	일반	0.58%
93	감염	0.51%	코로나	0.45%	전문병원	0.69%	상승	0.58%
94	전문가	0.51%	안전	0.45%	만성	0.69%	장관	0.58%
95	최고	0.51%	제도개선	0.44%	불편	0.68%	의심	0.58%

[부록] 계속

구분	과잉진료				한방진료			
연도	2010~2015년		2016~2021년		2010~2015년		2016~2021년	
순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96	예산	0.51%	불필요	0.44%	고객	0.68%	코로나	0.58%
97	발견	0.51%	메르스	0.44%	지속적	0.68%	난임	0.58%
98	수입	0.51%	의료쇼핑	0.44%	심평원	0.68%	변화	0.57%
99	전문의	0.51%	부담금	0.44%	다이어트	0.67%	시설	0.57%
100	규정	0.51%	메디슈머	0.44%	박사	0.66%	악화	0.57%
합계	73,847	100.00%	124,132	100.00%	52,999	100.00%	88,409	100.00%